

社說

광주일보의 새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시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요즘 최대 화제는 바로 그것이다. 뜻있는 사람들은 지금 광주일보의 앞날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호남 지역 대표 정론사인 광주일보의 운명에 지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지역사회 발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데다 호남 언론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일보가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 하는 것은 광주일보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역 언론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제 광주일보가 아닌 이 지역의 다른 한 신문이 관련 사실을 내보낸 것 역시 이 같은 지역언론 환경을 잘 알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이 신문은 '건설업체가 또 지역 신문 인수한다'면'이라는 제목에 '각계 언론 환경 악화 우려'라는 부제의 사설을 통해 건설업체의 신문사 인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계의 신문사 지배로 인해 지역 언론계에 생겨난 종기가 꿀을 대로 꿀이 있음을 잘 말해준다.

사실은 서두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건설업체들이 또다시 신문사를 인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니 걱정이 앞선다"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한다. 이어서 "그동안 광주·전남 지역 대부분의 신문사가 건설업체의 수중에 들어갔다가 모기업이 도산하면서 합계 부실언론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들며 걱정의 근

거를 제시한다. 이 신문은 또 건설업체의 신문사 인수가 가져왔던 폐해도 낱낱이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건설업체들은 신문사를 인수한 후 이를 방패막이로 삼으면서 행정기관 등을 음모로 양으로 위협하는 행태를 보여 왔고, 이런 영업 행태는 언론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켰으며, 이들이 도산하면서 무책임하게 나 몰라라 하는 바람에 기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언론 환경도 극도로 악화됐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끝으로 광주일보가 건설업체에 넘어가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유로 지역언론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번 기회에 언론의 소유주와 그에 따른 지형 변화에 대해 지역사회 각계에서 도전자로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우리는 이 신문이 광주일보 노조의 뜻에 적극 동조하면서 이 지역 언론의 미래를 함께 걱정해 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비단 이 신문뿐만 아니라 각계의 여론 주도층이 여러 경로로 같은 뜻을 표명하면서 광주일보에 격려를 보내주고 있다.

광주일보 노조가 어제 아침에 "광주일보 노조는 건설업체의 광주일보 인수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낸 것도 이러한 각계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 노조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받지 못한 퇴직금 등으로 인해 최대 채권자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노조의 의견을 들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광주일보 최대 구성원이며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대주주라면 어찌 신문사와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의 몇몇 대목을 인용하는 것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빠른 길이 될 것 같다. "광주일보는 현재 법정관리 중으로,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모회사인 대주건설의 부도 이후 근근이 버텼지만, 지난해 하반기 한 회사로 묶여 있던 합평 데이

제가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말한 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문가들도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열악한 지역언론의 현실에서 묵인되었고, 결국 이는 지역언론의 침체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광주일보 노조는 과거 대주건설의 경험, 그동안 건설업체의 지역 신문사 경영 참여로 빚어진 부작용, 그리고 최근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한국일보의 건설업체 배제 사례 등을 감안하여 건설업체의 경우 언론의 공정성을 기하면서 장기간 투자를 통하여 광주일보를 정상화할 수 있는 새 사주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일보 사주(社主)는 누가 되어 하나

본사 노조, 건설사 참여 적극 반대 지역언론 및 여론도 노조에 동조

너스티플프장 회원권 반환 요청으로 경영 수지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광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광주일보는 법에 따라 성실하고 의무를 다하였고, 그에 따라 법원은 최근 매각을 주관하는 회계법인을 정하여 광주일보를 이끌 어갈 기업의 투자 의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만간 광주일보의 새 사주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어 성명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광주·전남 지역에도 우후죽순 신문사들이 생겨났고, 그 대부분에 건설업

광주일보 노조가 이처럼 건설업체의 신문사 인수를 적극 반대하고 지역의 다른 신문을 비롯한 여론 주도층까지 이에 동조하고 있는 가운데 사주의 자격까지 들고 나온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번 광주일보의 위기는 공정하고 부끄러움 없는 언론으로 거듭나는 기회이며, 따라서 이처럼 중대한 시점에 새 사주는 좀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사주는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자본력은 물론이고 기업의 역사성과 미래 발전가능성,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 등의 자격을 고루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신문사가 이윤만을 추구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공적 인 기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새 주인이 결정되더라도 법적인

로 인수 과정에서 투입되는 인수자금이 신문사만을 위해 사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광주일보 인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인수자금과는 별도로 앞으로의 투자 계획 및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63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광주일보가 미래에도 여전히 호남 대표 정론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현재의 구성원을 전원 승계하는 것은 물론 장·단기 투자도 착실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인수 자금의 배정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은 자칫 언론의 공공성 증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때문에 인수 자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편집권 독립, 신문의 영속성, 고용보장 등에 대한 평가가 새 사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

물론 건설사라 해서 신문사를 운영하지 말란 법 없다. 하지만 그만큼 문화 사업이나 언론 창달에 관심이 있다면 신문사에 대한 지원이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일보의 이번 위기는 지역 언론을 개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는 기회가 되어야 하며, 마지막이어야만 한다. 행여 언론에 대한 철학이나 신념이 없는 기업이나 건설사가 신문사를 인수함으로써 언론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서는 곤란하다. 담당 재판부도 이번 결정은 호남언론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기에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

다산포럼



고 세 훈
고려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제도와 심성

내가 잠시 머물고 있는 영국 에든버러에는 런던과 달리 그야말로 빈 손이 전부인 전통적 결연들이 많다. 변화가든 뒷골목이든 한 블록 건너 구결하는 이와 마주친다. 사람들은 불어난 동구 이민자, 마약상용자 혹은 '위장 거지'라며 저마다 한마디씩 하곤 한다.

하지만, 빈민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무료급식소 운영자와 봉사자들은 그럴 때 다수가 각각의 곡절이여 어떠한, 복지 국가마저도 외면한 절박한 사람들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대처 총리 이후 간족, 민영화, 탈규제가 대세로 되면서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복지급여의 규모는 축소되고 급부요건은 까다로워졌다. 이로 인해 거리로 나왔은 사람들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했다.

제도가 빛나가면 많은 구체적 삶들이 고단해진다. 제도의 파급력은 광범위하

고 무차별적이어서 그것이 체계적으로 양산하는 고통의 규모는 사적인 연민이나 자선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다. 정말 심각한 일은 제도 혹은 그 부재가 개인들의 심성 자체를 타락시켜 집단적으로 죄의식을 마비시킨다는 점이다. 가령 국가가 노예제를 허용하면, 사람들은 인간을 소유하고 매매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 공개념을 예로 들더라도 이 개념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땅 투기는 매우 유용한 재테크가 될 것이며, 사유재산이 가장 우선적 가치로 신성시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경영참여는 전부당만부당한 요구일 뿐이다. 이기심이 제도화된 사회, 이기심이 결국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저 '합리적' 정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CCTV 같은 감시장치에만 걸들여진 습성은 독재가 들어서면 또 그것과 쉽게 타협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차브(Chav)라는 조어가 회자되는 것도 흥미롭다. 그 어원은 분명치 않지만 거기에는 갈수록 넘쳐나는 빈자를 피해자 아닌 가해자, 사회의 해충으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뜻이 담겨 있다.

그 단어는 얼마 전에 출간된 '차브들 : 노동계급의 악마화'란 책을 통해 새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자인 오언 조운스는 소위 '계급(정지)의 소멸' 담론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깊어가는 계급 갈등의 현실에 대한 '영국사회의 침묵의 음모'에 경

중을 울리기 위해 책을 저술했다고 밝힌다. 우리 모두 '희생양의 정치'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는 상식과 통념을 만들고 그로 인해 다시 스스로를 강화해 간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활개를 치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계산하는 공리주의적 산술은 제도를 넘어 암묵적인 사회적 통념으로 우리를 압박해 왔다. 그리하여 빈민들의 고통이 다수의 안위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때, 복지제도는 축소돼야 옳고, 다수의 소비자를 위해 값싼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면,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나 중소기업인들의 이해는 희생되어도 마땅하다.

사회를 비인격적 개인들로 조각내고 다시 기계적으로 합산하는 그 못된 습성에 비취보건대, 어쩌면 우리는 찰스 디킨스가 '하드 타임스'에서 그린 빅토리아 초기의 야만적 산업화 단계에서 한 치도 더 나가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실제로 언제부터나 공공선이나 정의, 평등 같은 '관계적 가치'는 객관적으로 계산될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애초에 고려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위협시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이런 논리는 가난을 의존문화나 성품과 태도의 문제로, 노동 윤리와 책임 의식의 실종 탓으로 환원한다. 빈자의 권리가 타인의 재산권을 '탈취'한다는 수준에서 논의하는 사회가 새로운 미래를 구상할

도덕적 상상력을 자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늘날 과연 빈자와 결연에 대한 우리 내면의 시선은 얼마나 건강한가.

우리는 길거리의 결연을 대할 때 보통 자신도 모르게, 상대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빈민(deserving poor)인지, 나의 자선이 그의 구결행위를 연장시키는 것은 아닌지, 내가 위장된 구결행위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복잡한 상념에 부딪힌다.

미국과 서유럽 유수대학들의 학생회가 다투어 초청하는 명감사이며, 내가 보기에 파스칼, 키르케고르, C.S. 루이스를 잇는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론자인 뉴욕의 팀 켈러는 결연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해 이렇게 질문한다.

과연 예수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땅에 왔으며, 십자가 죽은 이후에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인류가 겪을 엄청난 혼란, 갈등, 소동을 몰랐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는가. 그리하여 그는 결연을 향한 우리의 자선행위가 때때로 속고 낭비되고 배반당한다 할지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듯이, 상대의 처지를 재며 반응(reaction)하기보다는 우선 행동하라(act!)고 권고한다.

우리가 어느새 친숙해진 기독교인들의 답문에 치어 이리저리 망설이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사이에, 우리의 내면이 먼저 피해해지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따져 볼 일이다.

無等鼓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영국 처칠 수상이 폐렴에 걸렸다. 이때 그를 살린 것은 막 개발된 항생제 페니실린이었다. 당시는 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숨지는 경우보다 전염병 등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한다.

페니실린 등 다양한 항생제의 개발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밑바탕이 됐고, 천연두와 홍역 등 인류 생존을 위협하던 많은 전염병을 모두 없애는 듯했다. 그런 까닭에 1969년 미국 공중위생국장 윌리엄 슈투어트

는 "전염병의 시대는 이제 그 막을 내렸다"고 성공하게 호언장담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광우병, 라임병 등 새로운 전염병이 발병했다. 전문가들은 "가축 밀집 사육과 삼림 벌채 등 인간이 일으킨 환경 변화가 새로운 전염병을 야기하거나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마크 제롬 윌터스는 현대에 창궐한 광우병 등 6개 질병을 '환경 전염병'(Ecodemic)이라고 부르면서 "조심 없이는 인류가 자신의 집단 자연계를 파괴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빚어 낸 여섯 가지 우화"라고 표현했다.

광우병은 가축이 더 빨리 자라도록 재순환시킨 동물 단백질을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것이, 1960년대 미국 동부에서 발견된 '라임병'은 벌떡과 같은 생태 변화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숲이 파괴되면서 여우와 독수리 등 포식자가 줄자 생쥐와 사슴 수가 크게 늘었고, 이 두 종류의 동물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밑바탕이 됐고, 천연두와 홍역 등 인류 생존을 위협하던 많은 전염병을 모두 없애는 듯했다.

국내에서 '중등 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응과 함께 SNS를 떠도는 괴담까지 더해져 대중의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많은 질병을 극복해 왔다. 그러나 인간의 생태계 파괴에 따라 야생동물이나 가축에게서 유래되는 새로운 질병의 출현은 우려스럽기만 하다. 그런 까닭에 마크 제롬 윌터스의 주장은 의미심장하다. "새로운 치료법과 치료의 개발에만 몰두해서는 그 일(전염병 근절)을 해낼 수 없다. 우리는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의 토대가 되는 생태계 전체를 보호하고 복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환경 전염병

호남고속철보다 시급한 송정역 앞 교통 불편 해소

호남선 고속철도가 지난달 2일 개통되면서 광주~서울 간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열렸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광주 송정역의 하루 이용객이 과거 5000여명에서 1만3000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교통 불편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광주는 지금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앞장서야 할 때다.

송정역사는 기존 송정역 부지에 만들어진 탓에 역사 앞 광장이 협소하다. 그로 인해 승용차 및 대중교통 환승 구간과 부설 주차장을 송정역과 떨어진 곳에 설치한 것인데, 이 때문에 시민들과 대다수 택시들

이 송정역 바로 앞에 불법 주차장을 한 후 역사를 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습 교통 정체가 발생함으로써 하루에도 수십 건의 민원과 운전자들 간의 시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민들은 부족한 시설이 보충되기 이전에 먼저 선진시민의식을 발휘해 불법 주·정차를 자제하고 서로 양보하는 광주만의 후덕한 인심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코레일에서는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환승 구간을 정상운영하고, 보행교와 가드레일 등을 조속히 보충하여 광주 시민 및 U대화를 맞이하여 광주시를 찾는 내·외국인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순국회·광산구 도산동

서재, 세상을 말하다



박 철 상
문학박사·광주은행 영업지원부장

조선 후기 학술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용어 중의 하나가 '실학(實學)'이다. 하지만 이 용어의 정의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 중에서도 '실학'을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정의이다. 실사구시란 말은 본래 중국 한(漢)나라의 유덕(劉德)이란 인물을 평가한 말에서 유래했다.

유덕은 하간왕(河間王)에 책봉되었는데, 죽은 뒤 현(獻)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그래서 유덕을 하간현왕이라 불렀다. 그는 평생 책 모으기를 좋아했다. 당시 학자들은 그의 열정을 아주 높게 평가하였

이정리(李正履)의 실사구시재(實事求是齋)

고, '한서'를 편찬했던 반고(班固)는 전기기를 지어 학문을 좋아했던 그의 공덕을 추켜세웠다. 이 때 반고가 하간현왕을 평가한 말이 '수학호고(修學好古)', 실사구시(實事求是)'이다. '학문을 연구하고 옛 것을 좋아했는데, 충분한 사실을 근거로 믿을만한 결론을 도출했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19세기 조선 문인들 사이에도 널리 유행하였다. 특히 이정리(李正履, 1783~1843)는 그의 서재를 '실사구시재'라 하였다. 그는 '실사구시'란 네 글자를 크게 써서 벽에 붙이고는 친구 홍길주에게 글을 부탁했다. 홍길주는 세상의 모든 이치는 책에 담겨 있고 지식인들은 그 책을 열심히 읽는데, 막상 어떤 실이 실제로 닦지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정리 역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답장은 허물어지고, 집은 빚물이 썩 지경인데도 이정리는 '실사구시'를 벽에 써 붙여두고 책만 읽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정리가 말하는 '실사(實事)'란

게 무엇인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데 과연 '실사'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책 속의 지식이란 게 무용지물이란 말인가? 여기서 홍길주는 지식인의 책임이 밖으로 힘을 쓰는데 있지 않고, 안으로 이치를 찾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책을 읽지 않으면 천문이나 역법 같은 재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정리를 위로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실사'란 무엇인가? 홍길주는 하간현왕을 칭찬할 때 사용했던 '실사구시'의 의미를 되새긴다. 그리고는 하간현왕을 칭찬했던 '실사구시'의 '실사'란 곧 책 속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하간현왕은 수많은 서적들을 수집하고, 그 속에서 현실 문제의 해답을 찾았던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의 지식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하간현왕보다 훨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 왜 이렇게 실무에 어두운지 되묻는다. 홍길주는 여기서 당시 지식인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비판한다. 즉, 홍길주는 당시의 지식인을 일삼아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내버려둔 채, 오히려 아

득하여 실마리를 찾을 수도 없는 일에만 매달려 천 마디 만 마디 말로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라고 경계한다. 이들은 말로는 못하는 게 없지만, 실제 일이 닦지면 망연자실하여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꼬집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옛 책이 실용적이지 못하며 비웃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어찌 책의 잘못이겠는가? 홍길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웃웃하게 독서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정리를 칭찬한다. 이정리아말로 하간현왕처럼 책을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지식인이라고 추켜세운다.

지금도 우리는 '실사구시'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하간현왕의 경우에서 보듯듯이 '실사구시'의 '실사'가 단순히 실용(實用)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지식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였다. '실사구시'는 지식인만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문제해결 방책이었다. 이정리의 '실사구시재'는 바로 그런 지식인의 서재였다. 독서하지 않는 지식인은 진정한 지식인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權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독선정·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500) (F A X 222-0195)
편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체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